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엄성*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2016. 7. 10(일) ~ 7. 3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알고마대학은 온타리오주 수세인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말하듯 규모는 작습니다. 시설은 있을 거 다 있고 깔끔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게 평화롭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적응하기 좋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수업	수업은 reading Writing and Grammar, Speaking and Pronunciation, Technology 가 있었습니다. Technology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며 문법에 도움이 되는 수업입니다. Reading Writing and Grammar 수업시간엔 ppt를 통해 발표를 하거나 캐나다만의 단어, 캐나다의 문화 같은 것을 알려주었고 Reading Writing and Grammar 시간엔 캐나다와 관련된 읽기자료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제출하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반은 한국학생들 모두가 같은 반이었고 강사는 총 3분이었습니다. 과제는 ppt, 활동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기, 자료 읽어오기 가 있었습니다.
Activity	교외활동은 주변 관광지 관광, 도심구경, 지역 축제 참가, 봉사활동, 인근 음식점, 홈스테이 파티, 모카신 만들기, 박물관 관람 이 있었습니다. 주변 관광지에 딸기 농장이 있었는데 딸기를 따고 무게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고 사먹을 수 있었습니다. Whitefish Island에서 하이킹을 했는데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 이었습니다. 그리고 agawa rock과 lake superior를 갔는데 넓은 바다 같은 강 이었는데 수영도 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지역밴드 공연 구경과 음식, 옷 등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olour blast라고 달리기를 하며 사라들이 던지는 물감풍선 같은 것을 맞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인근 음식점은 스시 뷔페와 레스토랑을 갔는데 학교 측에서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p>봉사활동은 어린이 발레학원과 노인정 같은 곳을 갔는데 가서 한국 전통 놀이 같은 것을 소개하고 같이 하였습니다. 모카신은 캐나다 전통 신발 같은 것인데 강사를 초청하여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홈스테이 파티는 각 홈스테이 가정에서 원하면 하는 것인데 가서 음식 먹고 대화도 하고 하였습니다.</p> <p>캐나다 수세인트마리와 미국 미시간 수세인트마리 지역은 다리하나를 두고 붙어있어 홈스테이 가족들이 시간이 되면 같이 갈 수 있는데 미국달러로 6~7달러를 지불해야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한국에 비해 습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다만 햇빛이 강해서 선글라스랑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가면 좋습니다. 비도 가끔씩 오기 때문에 우산도 항상 챙겨가고요. 또한 여권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받기위해 토론토로 가야하는데 시간이 캐나다가 넓다보니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권이랑 운전면허증 같은 것이 있으면 술집을 가든 비행기를 타든 자신을 증명할게 필요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몹시 안전합니다. 평화로운 지역이에요. 다만 한국과 다르게 8시쯤만 되도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너무 밤늦게까지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p>
숙소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부부와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이 사는 집에 배정받았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자유분방하였고 규칙은 늦게 들어갈 때 따로 연락하는 것 정도 말곤 없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주로 홈스테이 집에서 식사하였습니다. 아침은 대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거나 시리얼 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리얼을 주로 먹었습니다. 점심때는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것 아니면 샌드위치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피자나 치킨 등을 시켜먹기도 했고 바비큐그릴에 소, 돼지, 닭, 소시지 등을 구워먹기도 하고 저희 홈스테이 엄마가 동양에서 와서 밥이나 잡채 비슷한 음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양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서 괜찮았고요.</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에서 준 버스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평일엔 저녁 7시 이전까진 30분마다 버스가 1대씩 다니고 7시 이후와 주말에는 1시간에 한 대 씩 다녔습니다. 버스로 시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824,9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권재발급 위해 토론토 경비	900,000	숙소, 교통비, 여권 재발급비, 식비
기념품	400,000	옷, 메이플 쿠키
식비	100,000	근처 레스토랑, 과자, 음료
합계	3,224,9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현지에 가보면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이루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관광지나 음식점등 알아보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같이 가 던가 친구들과 가보면 좋고 알고마 대학에 캐나다 현지 사람 말고도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친근하게 잘 해주고 영어도 잘하니 많은 대화를 나누면 좋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약간 운이 존재하는데 아무튼 홈스테이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맘에 안 들거나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어차피 다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족들은 우리에게 최대한 맞춰주려 노력할 것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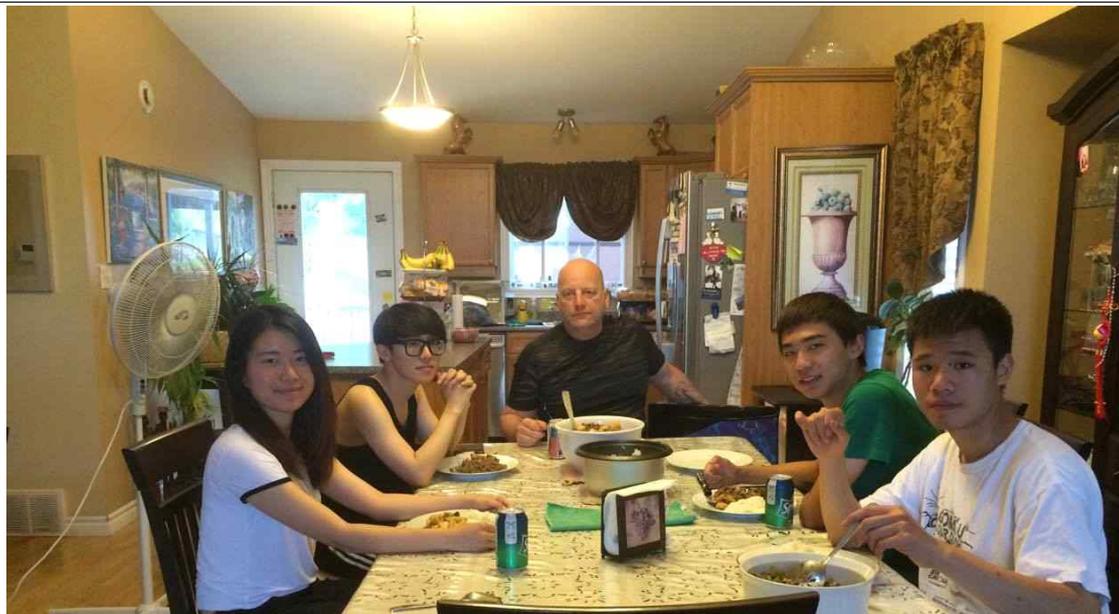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게 느껴지네요. 잊그제 캐나다를 간 것 같은데 눈을 감고 뜨니 꿈에서 깬 것만 같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세상이 정말 넓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꿈들이 정말 한없이 작고 불품없이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의 끝없이 이

어지는 도로와 그 옆으로 보이는 숲들, 강들을 보고 있으니 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애당초 목표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었으니 최대한 많은 대화를 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첫 주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을 하려해도 잘 나오지 않았고 듣는 것도 잠시만 멍 때리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주가 지나고 나니 말도 슬슬 나오고 듣기는 정말 느껴질 정도로 잘 들렸습니다. 확실히 현지에서 하루 대부분을 영어만 듣고 말하고 하다 보니 늘더군요. 하지만 영화를 볼 때 영국식 발음과 라틴계 쪽 영어 그리고 흑인들에 발음 등이 나오니 알아먹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권을 찾으러 경찰서에 갔을 때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많이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3주가 아닌 1년정도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좋은 면은 정말 많이 봤지만 나쁜 면까지 알기엔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문화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 부모님과 살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있으며 가끔 홈파티를 열어 여러 교류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캐나다에 갔다 온 뒤 꾸준히 팝송과 미드를 보고 있습니다. 영어를 꾸준히 듣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 뻔히 보이세요. 그리고 틈틈이 토익, 토플 공부를 하여 1년 후 장기로 교환학생을 갈 계획입니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저희 홈스테이 가족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 찍었으며 중국인, 일본인, 태국인 과 같이 살았습니다.



홈파티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한국음식, 일본음식을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홈파티 문화가 잘되어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관광지를 갔었는데 진짜 넓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캐나다가 자연보존을 정말 잘 한 국가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역 축제장소입니다. 신나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합니다.



여권발급을 위해 토론토에 갔습니다. 수세인 마리와는 다르게 정말 넓고 사람도 많고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딸기 농장에 가서 딸기를 따습니다. 햇빛이 정말 강하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